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

“균형 우선으로 진전과 안정 유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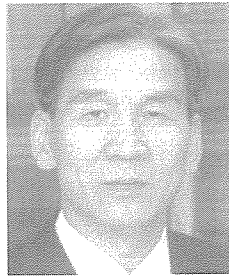
발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한 순간 눈을 돌리면 어느 순간 저 멀리 나아가 어느 방향으로 가버렸는지 그것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조금만 자기의 길과 다르게 되면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의학은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유전자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의학 치료기술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생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건강유지라는 문제에 곧 정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몸도 우주이며 자연

우리 생명에 대한 장수의 비결은 한의학(韓醫學)의 고전인 내경(內經)에 이미 나와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통하여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생명은 한번 태어나게 되면 생(生), 장(長), 화(化), 수(收), 장(藏)이라는 다섯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우주의 조화가 균형있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자연환경,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론을 동양의 최고 철학이



李 珩 九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며 과학이론의 바탕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통하여 자연의 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하였으며, 인체의 생리와 병리현상을 해석하는 훌륭한 도구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동양의 과학이론인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주 운행의 근본원리를 파악하여 이루어진 자연철학의 소산이며, 동양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중용(中庸) 그리고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란 서로 상대적이면서 서로의 뿌리가 되는 음(陰)과 양(陽),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혹은 서로 억제하면서 변화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다섯가지 인자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오행(五行)을 의미한다. 하나의 요소가 강하면 그것을 억제하는 또 다른 요소를 도와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의 요소가 약하면 그것에 힘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를 도

와서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의 자연관과 우주관은 우선 모두 상대적인 음양이론(陰陽理論)과 상호보조와 상호억제를 통한 끊임없는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오행원리(五行原理)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연은 항상 덥고 추운 느낌, 건조하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등, 모두 상대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그러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거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생물은 정지된 것이 아니고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양에서는 기(氣)로서 표현하고 이러한 기의 흐름은 생명현상으로 나타난다. 한쪽이 만들어지면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이 더워지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이 건조해지면 한쪽은 습기가 넘치고, 한 부분으로 볼 때는 무더운 것이 잘못되고 건조한 것이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도 하나의 우주이고 자연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심장이 있다면 호흡과 소변으로 몸을 식혀주는 폐와 신장이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우리에게 맞지않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조건을 변화시키는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잡힌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먹는 곳이 있다면 곧 배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몸 안의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쉬지 않고 활동하여 음양과 한열(寒熱) 및 조습(燥濕)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내부 장기(臟器)의 대소(大小)와 기능(機能)의 강약(強弱)이 다르므로 약간의 균형의 편차가 있지만, 그것은 항상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균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일 뿐이다. 항상 전진과 발전하고자 하는 목화(木火)기운, 진정하고 안정시키고 내실화 하려는 금수(金水)기운,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인 역할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토(土)의 기운,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우리는 우주와 자연, 사람의 운행규칙 및 생명현상을 알 수 있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환경파괴는 커다란 충격

어쩌면 이러한 동양의 철학이자 과학론인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은 현대 과학과 의학의 여러 가지 이론에 비교하면 미미한 존재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커다란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과학을 통하여 발견된 새로운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과학의 현저한 발달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연의 많은 지하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 즉 우리 자연과 환경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자연의 자연스러운 운행을 통한 환경의 유지에 커다란 충격을 줌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과학과 현대의학을 통한 건강의 유지와 생명의 연장에 도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무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한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며 과학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욱 건강과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히려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과 많은 질환에 시달리는 노령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자연이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생명체이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완전히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인간이란 각각의 모양으로 공통적인 생명 요소를 다 지녔지만 또

각기 다른 특유의 생리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질병이 오기 전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법이며,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체 각각의 특징적 생리조건에 맞게끔 인체 내부의 상호보조와 상호억제라는 작용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환경을 바꾸어버리기보다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잡힌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나친 편리성 추구하고 생산 확대에 대한 고집,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파괴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러한 물질주의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전체적인 균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균형을 위하여 한쪽이 나아가려면 한쪽은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 등 이러한 세가지 요소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면 과학은 분명 우리 인간과 세상에 건강하고 희망찬 가능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㉟